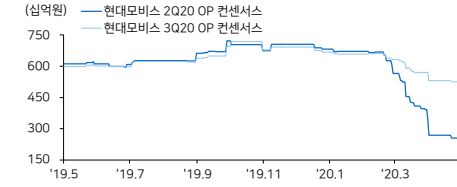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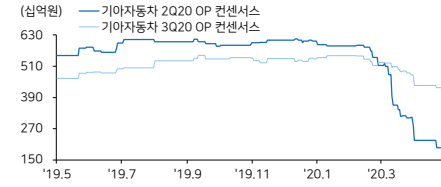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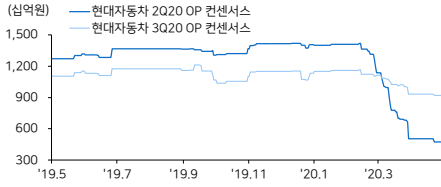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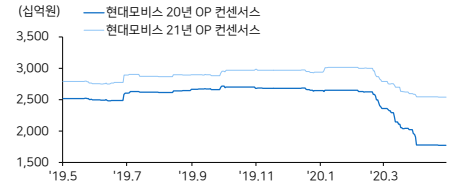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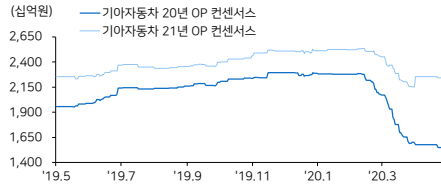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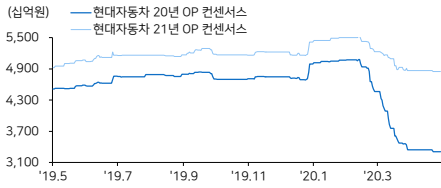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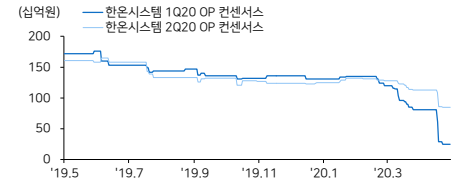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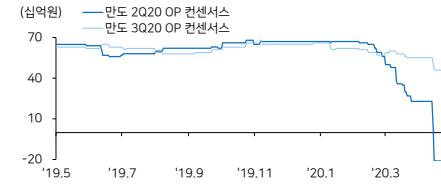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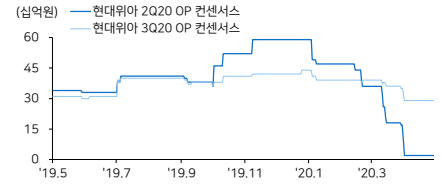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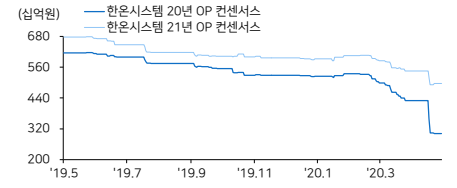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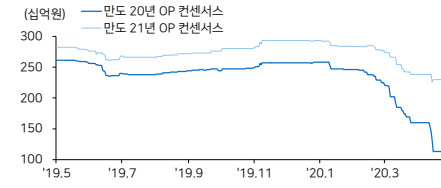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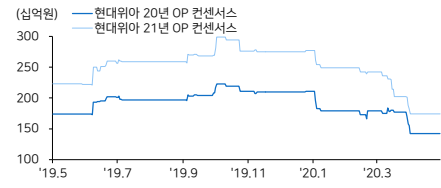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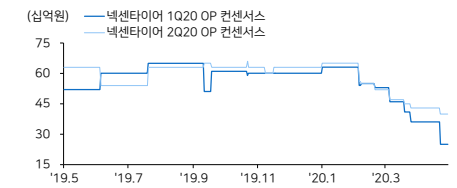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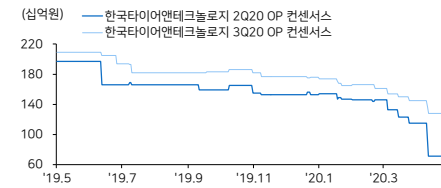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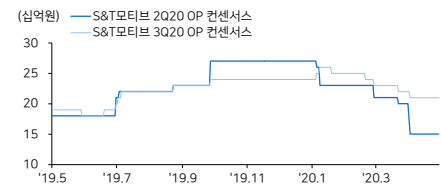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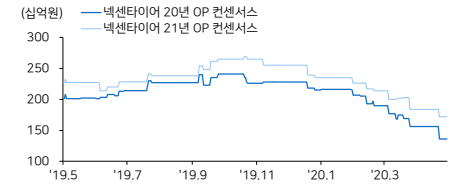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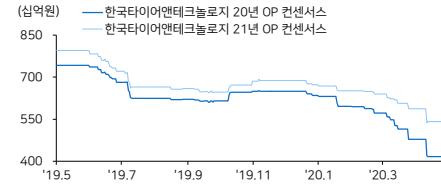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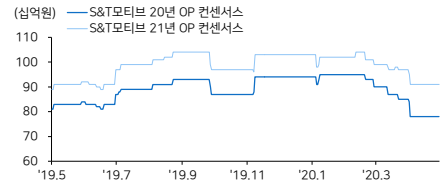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스파이더맨, 현대차 타고 하늘 난다 (중앙일보)

현대차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현대차의 신차와 각종 모빌리티 비전, 다양한 신기술이 소니 픽처스의 영화와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에 등장하는 것. <https://bit.ly/3eas0cC>

현대모비스, 코로나19 극복 '적극행보'...R&D 1조원 투자 (미디어펜)

현대모비스가 R&D 역량 강화를 나섰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율주행·전동화 개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연구 개발 투자와 관련 인력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https://bit.ly/2X9hzCG>

블래드운동에 치이고 경영난에 허덕이고...닛산 '한국서 철수' (중앙일보)

한국닛산은 올해 말부로 한국에서 닛산 브랜드를 철수,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사업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사에서 내린 최종 결정이라고 설명. <https://bit.ly/3c9fta1>

일본 자동차 업체 4월 미국 내 생산량 '0'대 (KBS)

일본의 주요 자동차 업체 8개사가 4월 국내의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대수가 60% 이상 감소. 도요타와 혼다, 닛산 등 8개사의 전 세계 자동차 생산 대수는 91만 6천255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9% 급감. <https://bit.ly/2Xb6rVT>

현대·기아차 온라인 판매...한국만 빠졌다 (한국경제)

현대·기아차가 언택트 거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에 나섰. 상당부터 옵션 선택, 결제에 이르기까지 차량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 단 한국은 제외. 노동조합의 반대 때문. <https://bit.ly/2Bd6oAj>

홍남기 "자동차부품 산업에 5000억 상생보증" (한국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자동차부품 산업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 자동차부품 산업을 위한 상생보증은 완성차업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마련. <https://bit.ly/2YLDcPe>

유럽 전기차 투자공세, 중국보다 뜨겁다 (글로벌이코노믹)

유럽이 전기차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투자에서 중국을 앞지름. VW이 주도. 벨기에 환경단체 T&E에 따르면, 2017년 7월~2018년 6월 말까지 유럽의 전기차 투자는 32억 유로였으나 다음 해에는 600억 유로로 20배 증가. <https://bit.ly/36D0i0B>

테슬라, 북미·중국에서 자동차 가격 최대 5000달러 인하 (ZD넷코리아)

테슬라가 북미 지역과 중국에서 테슬라 자동차 판매 가격을 대폭 인하. 테슬라는 북미 지역에서 모델3와 모델S, 모델X의 가격을 약 6% 인하하고, 중국에서는 모델S와 모델X의 가격을 약 4% 가량 인하한다고 밝혔. <https://bit.ly/3devT2d>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